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장성' 만든다

장성군,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등 출산 격려 전입 장려금·결혼 축하금·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사업 다양

장성군이 산모에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결혼·출산을 격려·지원하는 사업을 풍성하게 추진한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입 장려금과 결혼 축하금 지급에서 임신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생아 양육비까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

다 장성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 전입장려금 10만~15만원, 또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혼인 신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눈여겨볼 만 하다. 올해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식품을 1년 간 48만원(1회 2만~6

만원 한도) 규모로 배분해준다.

또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장애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출산축하용품 택배 지원(1회, 20만원 상당) ▲신생아 양육비 지원(1~4년, 출생아 순위에 따라 30~1000만원 차등 지급) ▲임부 건강교실 운영(요가 및 산전·산후 관리, 8회) ▲영양플러스 사

업(저소득층 대상)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는 신혼(예비)부부 건강 검진비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장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78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4위(전남 3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이하로 떨어졌지만, 장성군은 전년 대비 0.14명 늘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마을정원 가꾸고 환경도 개선하고

장성군, 소공원 가꾸기 호응

장성군이 지역사회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소공원 가꾸기 사업이 공원 조성과 환경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 곳곳에 방치돼 있던 자투리땅을 소규모 정원으로 가꾸고 있다.

소위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애항심도 고취되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소공원 31개소와 가로화단 110개소 등 총 13만㎡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책정돼 각 읍면에 배정됐다. 2월까지 고사목 제거와 비료 주기, 가지치기를 진행한다. 이후 병해



장성 백암마을 주민들이 자투리땅에 마을정원을 꾸미고 있다.

<장성군 제공>

충 방제와 풀 베기, 관수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치돼 있던 마을의 자투리땅이 소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마을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군민과 함께 '엘로우시티' 디자인'

200㎡ 이상 개인 건축물에 노란색 입히면 도장비 지원

지자체 최초로 컬러마케팅을 펼친 장성군이 도시 디자인에 동참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연면적 200㎡(60평)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한 도장공사비를 지원하는 '엘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시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성군은 황룡강에서 모티브를 얻은 '엘로우시티 컬러마케팅'을 추진, 군민의 부와 행복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왔다.

'엘로우시티' 디자인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도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00~3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300만원 이내, 도장면적 3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은 400만원 이내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과 함께 엘로우시티 장성을 디자인해 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엘로우시티 컬러마케팅 계획을 수립, 이듬해 마스터플랜 책자를 발매했다.

이후 군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과 시설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9 올해의



장성군이 200 이상 개인 건축물에 '엘로우시티 디자인'을 입히면 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색으로 단장한 장성청소년수련관 쉼터.

<장성군 제공>

공간디자인' 대상, 대한민국 국토경관 디자인대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서 접수...친환경인증 농가 무상 공급

화순군은 다음달 27일까지 논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왕우렁이(치패) 공급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농가에 왕우렁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왕우렁이 공급 사업은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토양과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다.

화순군은 왕우렁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군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4억9000만원이다.

친환경 인증 농기뿐 아니라 우렁이농법을 실천할 벼 일반(관행) 재배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3월 27일까지 제

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왕우렁이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수거한다는 약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벼 재배면적 1ha당 친환경인증 농가는 12kg, 일반 농가는 11kg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왕우렁이는 탁월한 제초 효과가 있고 벼를 먹는 등 피해를 주는 일도 거의 없다.

논을 평탄하게 고르고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내기 후 왕우렁이를 놓아주면, 제초효과가 99% 이상인 어서 제초제 없이 벼를 키울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렁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져 화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 산림소득 사업 참여자 모집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대외 경쟁력 강화

화순군은 임업인의 생산기반 마련과 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도 산림소득 지원(소액)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사업) ▲산양삼 생산과 확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소액 사업) 등 6

개 사업 8개 세부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서는 오는 28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군,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중기 26곳에 12억원 투입

장성군은 올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4·5종 대기 관련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장성지역 총 26곳의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지원액은 2억7000만~4억5000만원으로 방지시설 종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2019년 장성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민의 37.5%가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을 지목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원에 가깝게 2억 4천 원으로 돌려 드리며 원리차액도 50% 이상 절감해 드립니다
- 50세 이상 조립형 중소기업이 많아 출생이 어려운 중소기업
- 3~4억 원 등 고금리 대출을 원리차액 50% 이상 절감해 드립니다
- 3~4억 원에 가깝게 2억 4천 원으로 돌려 드리며 원리차액도 50% 이상 절감해 드립니다
- 50세 이상 조립형 중소기업이 많아 출생이 어려운 중소기업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